

<보도자료>

“어른에게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청소년 교육감후보 선거운동 종료선언 &
청소년 정치적 권리 요구 기자회견

때: 2008년 7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교육감투표소 '경기상업고등학교'

서울시교육감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본부

<기자회견 순서>

첫 번째 청소년발언 - 또또

두 번째 청소년발언 - 팩신내

세 번째 연대발언 - 비청소년(미정)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취지>

- 오는 7월 30일은 서울 시민의 손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날입니다. 최근 촛불 집회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소년은 정작 이 선거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출마는 당연히 못하고, 투표는 물론이거니와 선거운동도 못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따름입니다.

- 이처럼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중요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선, 총선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안의 의사결정구조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는 형식으로 그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교실 안에서 머리가 지끈거리도록 외워대는 '민주주의' 따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호 0번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청소년들을 철저히 대상화시켰습니다. 여섯 명의 후보들 중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후보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불쌍한 아이들을 살려주자' 라는, 청소년들을 스스로 삶의 주체로 보기 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슬로건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섯 후보 모두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어머님 사교육비 줄어드릴게요' 하는 구호는, 그들의 눈에 당장 자신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비청소년들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 이렇게 청소년들을 유명 취급하는 교육감 선거를 비판하며 기호 0번으로, 청소년 후보가 출마했었습니다. 청소년 후보는 포스터도 여기저기 붙이고, 촛불집회를 참석하여 시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선거 유세도 하였습니다. 물론 5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서(청소년 노동권을 보장하라) 직접 출마하지는 못했지만, 청소년들의 현실을 깊숙이 잘 알고 있는 당사자 후보인 청소년 후보가 가장 출마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비록 이번 기호 0번 캐발랄 청소년 후보의 선거운동은 이렇게 마무리 짓지만, 우리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계속 휘둘리면서 교육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경과>

7월 17일 - <청소년 빠진 교육감선거 한 달도 못가 2MB된다>라는 제목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올해부터 제한절이 까만날로 바뀌어서 몇몇 청소년 후보들이 학교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19일 - **촛불집회 청소년 대토론회 <이명박 정부에 대처하는 청소년들의 자세>에 참석**하여 청소년 후보 출마의 취지를 밝히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함께할 것을 호소하는 **축사**를 하였습니다. 향린교회에서 열린 청소년 토론회에는 40명 정도가 참석하여 촛불집회 안에서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을 비판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7월 21일 이후 수시로 - 컬러풀하고 발랄한 기호 0번 청소년 후보의 **포스터 부착작업**을 하였습니다. 홍대, 신촌, 이대 일대와 종로와 서대문 등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다른 후보들의 벽보 옆에 당당히 기호 0번으로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선관위에서 벽보를 많이 붙이지 않아서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는데, 비가 오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 날에 걸쳐서 포스터를 수십 장 붙일 수 있었습니다.

7월 25일 -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발언도 하고 선전지도 부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를 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긴 하였지만, "뺏다뺏다 청소년, 기호0번 청소년, 뺏다뺏다 청소년 진짜 교육감" 등의 선거 CM 송도 부르면서 청소년 후보의 주장을 담은 선전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7월 26일 - 학교자율화조치 발표 100일을 규탄하는 **청소년 집회에 참석**하여 청소년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계속된 촛불집회에 가면을 쓰고 참석하여 피케팅도 하고 선전물도 나누어주며 **유세**를 하였습니다.

7월 27일 - 실제 서울시교육감 후보인 기호 6번 주경복 후보와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학생인권 보장 정책이나 청소년들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들은 특히 청소년들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와 선거운동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 청소년 후보 블로그 운영 - csn08.tidtiry.com에 정책과 일정들을 올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29일 현재 15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청소년 후보 블로그에 방문하여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선언문>

개발랄한 외침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개발랄젊은후보 기호0번 청소년후보와 청소년의 정치적권리를 지지하는 선언!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학생들의 숨통을 더욱 틀어막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놈의 교육부인지 과학기술부인지 무개념부인지 영어로 수업을 하겠다고 하질 않나, 0교시에 강제 야자, 방학 중 강제 보충수업 같은 걸 금지하지 않겠다고 하질 않나, 그 덕에 청소년들의 사적인 시간과 자유는 점점 줄어들고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도 마찬가지로 했다. 언제부턴가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라는 중대한 자리를 차지해 버렸고, 학교의 억압과 인권침해로 뒤범벅된 현실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렸다. 두발규제나 체벌 폭력, 그리고 여러 차별 등은 그런 더러운 현실의 한 단면이다. 학생이 주인이라고 말로만 떠드는 학교는 학생들의 열정과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꽂아 내리고 짓밟고 있다. 공교육 테두리 안에 있는 학교가 이럴진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교육현실이 더욱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는 30일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당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던 교육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몰려 있는 서울시의 교육감 선거 경우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뽑는 이 선거에는, 정작 교육감 선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 교육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이 빠져 있는 교육감 선거, 이런 걸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청소년이 빠진 교육감 선거의 한계는 당장 후보로 나온 이들의 표어나 정책만 보더라도 한 눈에 드러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투표권이 있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눈길을 끄는 것에만 급급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는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후보들이 그나마 청소년을 언급하는 것도 '살려야 할 아이들' 같은 식으로 어른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의 존재를 이용할 때뿐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엄연히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다. 이런 청소년이 직접 교육감이 되지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감을 내 손으로 뽑을 투표권을 가지지도 못 하며, 심지어 선거운동 등으로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반영하지도 못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멀뚱히 구경이나 하다가 결과 나오는 대로 따르거나 하라'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의 개발랄 교육감 기호 0번 '청소년' 이 나타났다. 후보 '청소년' 은 특유의 재기발랄한 입담과 기세로 진정 청소년

년을 위한 거침없는 정책과 공약들을 내놓았다. 자주 듣기만 하지 결코 실행되는 법은 없는 두발 전면 자유화 체벌 절대 금지의 완벽보장부터 입시경쟁교육의 시원한 폐지, 가정환경 조사서 없애기 등 실제 경험에서 나온 세세한 부분까지, 이런 공약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후보 '청소년'은 현실 따지느라 학부모를 외치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온전히 청소년들의 권리에 집중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육감은 이런 교육감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교육감은 청소년들 자신이다.

후보 '청소년'의 번호인 0은 청소년들이야말로 교육감 선거참여를 0순위로 보장받아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듯하다. 기호 0번 '청소년'의 출마는 딱딱한 선거법과 청소년 아웃의 현실에 대한 명쾌한 불복종 선언이다. 후보 '청소년'은 청소년의 투표권 보다 더 포괄적인 선거권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며 '청소년 IN'을 외친다. 그 IN은 다름 아닌 사회 속으로의 IN이고, 정치 속으로의 IN이다. 우리는 이러한 '청소년'의 불복종을 적극 지지하며, 사회 밖의 주변인에서 사회 안의 함께 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청소년들의 외침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 자신들이 받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기를 바란다. 인간답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환경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민주적인 교육을 원한다. 마지막으로 기호 0번 '청소년'이 정말로 교육감이 될 수 있게 하는, 자신들의 일을 직접 다루고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청소년들의 바람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은, 교육감 선거가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내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 내가 배제되는 일이 생겨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나이든, 미성숙함이든, 정치적 판단능력의 부족이든, '권리'를 빼앗기 위해 하는 모든 논의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실은 하나다. 청소년의 일에 대한 결정권은 청소년이 가져야 한다. 청소년의 일에 대한 결정을 선거라는 형태로 투표라는 형태로 해야 한다면, 청소년들은 마땅히 투표권을 보장받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인간이 정치적 존재라면, 청소년 또한 정치적 존재다. 청소년이 인간임을 부정하는 사회의 모든 제제에 강력한 거부를 표하며, 고하노라. 청소년 아웃의 시대는 끝났다. 기호 0번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지지하는 개인들

<청소년> - 총 42명

강수빈 / 김동욱 / 김석영 / 김세희 / 김초롱 / 김희진 / 남은들 / 민승기 / 박상언 / 박종호 / 배정은 / 백인규 / 성유진 / 소혜림 / 손지현 / 손창훈 / 심표 / 유병현 / 유선경 / 윤가현 / 윤태강 / 이성묵 / 이수빈 / 이정수 / 이정훈 / 임소정 / 임지혜 / 장은진 / 정대욱 / 정지애 / 정지원 / 정필재 / 정해동 / 조만성 / 조혜령 / 조휘찬 / 최종민 / 태성희 / 한수호 / 한지혜 / 한호준 / 허종은 / 허진영

<비청소년> - 총 90명

강은비 / 고은채 / 공현 / 팽이눈 / 권순걸 / 권영도 / 기선 / 기은환 / 기효은 / 김진태 / 김경옥 / 김미아 / 김병선 / 김송희 / 김용성 / 김일숙 / 김정빈 / 김종훈 / 김준형 / 김지양 / 김지은 / 김지은 / 김하늬 / 김하랑 / 김효승 / 나영 / 남주연 / 덕기 / 동부리 / 라브 / 라정민 / 랑 / 레이 / 문유성 / 민진 / 박김형준 / 박래균 / 박미선 / 박민지 / 박민지 / 박종홍 / 박혜윤 / 배경내 / 배광훈 / 배여진 / 백지영 / 생선 / 서동호 / 서영주 / 서태정 / 성진 / 아해 / 엄진 / 영원 / 유혜정 / 윤영 / 이기자 / 이기택 / 이다예 / 이상재 / 이상준 / 이송이 / 이원섭 / 이재영 / 이지민 / 이지민 / 이혜영 / 임경연 / 임철민 / 장민희 / 장소연 / 전누리 / 정다은 / 정상근 / 정성혜 / 정유돈 / 정창현 / 정혜숙 / 조경옥 / 조선구 / 조희주 / 최슬기 / 최영균 / 최완욱 / 최용호 / 캔디.D / 한상원 / 홍이

개인 - 132명

지지하는 단체들 - 총29개 단체(동아리+연대체 포함)

광주인권운동센터 / 교육공동체 나다 / 문화연대 / 민노당청소년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범국민교육연대(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노동자의 힘,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학생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진보교육연구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페다고지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세미나 닭 / 이주인권연대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 / 전교조 서울 /
전교조남부지회 / 전국청소년학생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소년인권모임
인권을지키는사람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 학벌없는사회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흥사단 청소년 인권포럼
위더스

영서중학교 인권동아리 / 인천송도고등학교 토론동아리 류케이온 / DOG
천안북일여자고등학교 토론동아리 / soul 광주송일고등학교 독서토론동아리